

절·마을 '참마음'으로 통했어요



미항사 아래마을 산정리 당산나무.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하는 산중 사찰 미항사는 문턱이 낮다. 달마산을 내려온 바람이 풍경 소리 법문을 밤새도록 들려주었다.

산사 초입에 피어있는 동백꽃만큼이나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미항사의 장건 설화를 들여보자. 경덕왕 749년 돌로 만든 배가 달마산 아래 포구에 닿았고, 배안에서 범패 소리가 들려 어부가 다가가지 배가 멀어져 갔다. 이야기를 들은 의조 화상이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포구로 나갔을 때 배가 포구에 다다랐는데 금인이 노를 젓고 있었다. 배안에는 <화엄경> 80권, <법화경> 7권,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40성중, 16나한, 탱화, 금가락지 검은 돌이 실려 있었다. 사람들이 경건 모실 곳을 의논할 때 검은 돌이 갈라지며 검은 소 한 마리가 나와 커다란 소로 변했다.

그날 밤 의조 화상 꿈에 나타난 금인이 소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소가 누웠다가 일어나지 않거든 그 자리에 모시라고 일러 주었다. 소를 앞세우고 가는데 소가 한 번 평바닥에 놀더니 한참 일어나지 않다가 다시 일어나 골짜기에 이르러 누워버렸다. 처음 누웠던 자리에 톱고사를, 마지막 머문 자리에 미항사를 장건했다.

조선시대 한때 웅성을 거느리던 미항사는 풍물패를 이끌고 청산도로 가던 배가 조난당하는 바람에 주지스님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89년 주인 없이 비어 있던 미항사에 지운, 현공, 금강스님이 머물러 마음을 다하여 중창 불사를 시작했다. 불과 15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름다운 미항사로 가꾸는데 사하촌 사람들의 애정도 한몫을 했다. 절집의 일이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동부청년회가 발을 벗고 나서서 돕는다. 이제 미항사는 사하촌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한문 학당, 탁본, 생태 체험, 별자리 탐험, 오키리나연주 등 교육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산골 마을 사람들을 잡어서 깨운다. 마을로 내려온 스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서정, 산정, 미아리, 어블리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정월에는 마을 당재를 모셔주기도 한다.

마을 당재는 음력 14일 동네 아낙들이 다라뽕지 박에 한상씩 음식을 차려와 동네 앞에 진설을 하고 군고패가 굿을 치며 당재를 모신다. 아랫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스님은 절 주인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미항사는 산사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찰이다. 전문 공연 단체에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지 금강스님이 지휘 본부장이 된다. 몇 안 되는 종무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많은 관객들을 수

정월이면 마을의 안녕 위해 스님이 직접 당재 모셔 주기도 산사음악회 등 행사 있을때면 사하촌 사람들 발 벗고 나서

움하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무대 설치부터 식사 대접까지 모두 사하촌 사람들의 봉사로 행사를 마치게 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템플스테이 손님이 많은 미항사에는 공양



산정리 풍경.



미항사와 달마산.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⑥ 달마산 미항사

주 보살이 들이다. 필요할 때마다 아랫마을 아낙들이 돕는 손길이 된다. 그것은 먼저 스님이 마을 문을 열어 두었기 때문 아닐까. 스님은 한 사람의 손님이 라도 빼뜨리지 않고 차담을 나눈다.

미항사에 들렀다가 미소 띤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스님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쉬워 매달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었다. 성북동 법전사에서 '참사람의 향기'를 통하여 참된 마음들이 소통을 하고 있다. 3월에는 미항사 주변의 향기를 전해주기 위해 화가리에 사는 정기열 할아버지(73)가 남도의 판소리로 어울림 마당을 만들었다.

미항사 사하촌에서는 스님들도 많이 나왔다. 설두 스님, 법두 스님이 장춘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대흥사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미항사를 부흥시키려 했던 흔허 스님도 사하촌 사람이다.

미항사 중창 불사를 위해 흔허 스님이 궁구패를 조직해 스님들과 같이 시주를 구하려



미항사 동백꽃

다녔다. 영화 서편제

에서 나오는 청산도로 마지막

시주를 구하려 가기 전에 꿈을 꾸었다

는데 구렁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다음날

바다로 떠나고 풍랑을 만나 모두

죽고 설장구를 치던 사람만 살아남

았다. 그러나 먼저 죽은 사람들이

설장구가 없어 굿이 안 된다고 부르는

환청에 시달리며 죽고 말았다. 그 일로

미항사 중창 불사가 한 번 꺾이고 백년

후 다시 뜻을 이루어 미항사가 되었다. 황간도의 사자

바위에 음력 2월 보름이면 굿소리가 나고 혼불들이

나타나 굿을 친다는 이야기가 어른신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그 때 미항사 군고패

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미항사의 중창 불사 꿈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백년이 지나 미항사 중창

불사가 시작되었고, 군고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 생애 만난 스님과 상좌가 사찰을 살

리려 한다는 말을 한다. 미항사가 추구하는 것이

나 풍물굿이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미항사=김필수(수필가·본지 객원기자)

군고패의 상좌 박필수 선생



음악은 서로 다름 인식하는 것 신심과 한 판 놀이야 '풍물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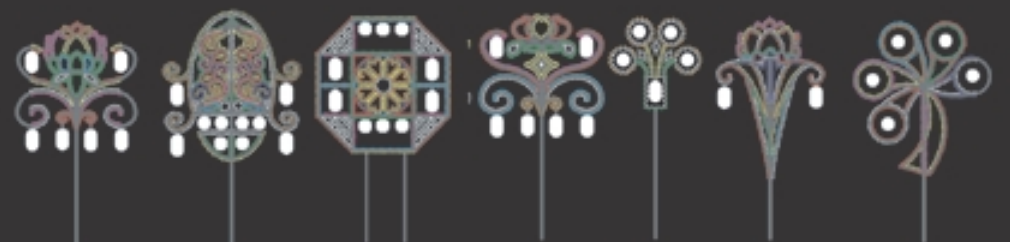
군고패의 상좌 박필수 선생은 중학교 때 도시로 나갔다가 고향집이 너무 그리워 다시 돌아와 악기를 만지게 되었다. 동네에서 굿을 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탓에 굿을 치는 것이 고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을에 돌아왔을 때 어른신들이 당산 나무 아래에서 징과 팽과리를 치며 노는 것을 보고 나의 여행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그것은 보존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생생하게 나오는 그림이 없는가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산 나무 아래의 어른신들과 굿소리가 화면에 찍 차게 들어오는 것이 나는 여기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지요. 나는 음악 하는 사람으로 버치지 않기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도의 예술 정취라고 할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춤이 나오고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소리로 나오는 것이지요. 음악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 표현해 보고 자연과 어울림을 갖는 것 입니다."

바람이 다르거나 물결이 다르거나 토양의 문제가 인간의 감성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악기를 두드리는 것은 신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와 내 속에 있는 신심과 한 판 놀이를 벌여야 되는 것이 풍물패라고 말했다.

금강 스님과 박필수 선생은 미항사 산사 음악회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무모하게 처음 시도하게 되었다. 음악회라기보다 축제판이라고 해야 어울릴 듯하다. 유명한 사람들 불러오지 말고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가을에 1년 동안 수고하고 따뜻한 것들을 미항사에 와서 보따리 풀어내며 가득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산사음악회에 쏟는 그의 열정은 남다르지만 대가가 필요 없는 순수한 봉사다.

어두운 세상 밝히는 찬란한 빛의 세계 새로운 연등 마음의 빛으로 승화하시고 소원성취 하소서



소품형(가로등대용)-각종행사시 연등걸이대로 사용가능



아치형-사찰입구 및 경내에 설치

등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전구는 LED로써 필라멘트 전구보다10%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므로 매우경제적임.



이투엘아이엔씨 WWW.E2LIN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2가 10-1번지 제작 및 납품문의:02-2633-4955